

광주시민의 삶의 질 수호를 위한 퇴촌 물류단지 입지 반대 촉구 결의안

의안 번호	1575
----------	------

제출일자 : 2018. 12.

제 출 자 : 주임록 의원, 방세환 의원의 8명

외 8명

1. 주 문

광주시의회는 지난 9월 28일 국토교통부의 실수요 검증을 통과한 퇴촌면 도수리에 302,088㎡ 규모로 들어설 퇴촌 물류단지와 관련하여 광주시에는 이미 2개의 물류단지가 운영 중이고 2개는 공사가 진행 중이며 퇴촌 물류단지가 실수요검증을 통과하면서 총 4개의 물류단지가 실수요검증을 통과함에 따라 해당 물류단지가 모두 입지하게 될 경우 광주시의 교통대란은 불 보듯이 뻔한 일이므로 광주시민의 삶의 질 수호를 위한 퇴촌 물류단지 입지 반대를 강력히 촉구한다.

2. 제안이유

가. 광주시는 개발제한구역, 특별대책지역1권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수많은 법의 중첩규제로 고통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은 엄격한 기준을 고수하여 전혀 검토되고 있지 않고 있으나, 광주시민에게 백해무익한 물류단지 입지에는 관대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조금의 노력도 보여주지 않아 지역주민들의 불만과

분노만을 키우고 있다.

나. 물류단지 입지는 광주시 뿐만 아니라 주변 시·군을 연결하는 주요도로를 대형화물차의 주차장으로 만들어 광주시를 교통지옥으로 만들뿐만 아니라 대형화물차의 이동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의 피해와 인도가 부족한 도로를 이용하는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다. 이미 운영 중인 물류단지 기업들은 주민들에게 이런 피해를 입히면서도 피해방지를 위한 어떠한 노력도 보여주지 않고 있다. 이런 현 상황을 지켜 본 광주시민들의 물류단지 입지에 대한 반대 입장은 지극히 당연한 결과다.

라. 광주시는 시민 모두가 예측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지역주민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고 퇴촌 물류단지 사업이 추진되기를 희망한다고 회신하는 등 실수로 검증이 통과하게 된 원인을 제공한 이후 신속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3. 퇴촌물류단지 입지 반대 촉구 결의안 : 붙임

광주시민의 삶의 질 수호를 위한 퇴촌 물류단지 입지 반대 촉구 결의안

광주시의회는 지난 9월 28일 국토교통부의 실수요 검증을 통과한 퇴촌면 도수리에 302,088㎡ 규모로 들어설 퇴촌 물류단지와 관련하여 광주시에는 이미 2개의 물류단지가 운영 중이고 2개는 공사가 진행 중이며 퇴촌 물류단지가 실수요검증을 통과하면서 총 4개의 물류단지가 실수요검증을 통과함에 따라 해당 물류단지가 모두 입지하게 될 경우 광주시의 교통대란은 불 보듯이 뻔한 일이므로 광주시민의 삶의 질 수호를 위한 퇴촌물류단지 입지 반대를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국토교통부는 각종 규제로 광주시를 억압하면서 물류단지에만 관대하게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 없이 졸속하게 처리한 광주시 내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 통과를 즉각 철회하라!

둘째, 경기도는 광주시민의 삶을 위협하고, 고통을 주는 실시계획승인 신청 시 즉시 주민공청회를 실시하고 인가를 불허하라!

셋째, 사업시행자는 소음·진동·매연·안전위협으로 주민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물류단지 계획을 철회하라!

2018. 12. .

광주시의회 의원 일동